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08

2019.4.7

유아숲 특집호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0,52 (쉬운성경)

오늘의 주요기사

2면	유아숲 소개
3-5면	유아숲 부서 소개
6면	부모 간증
7면	교사 간증
8면	아기나들이, 알립니다

교회일정

4/14(주일)	종려주일 / 세례, 입교예식, 정기당회
4/15(월)~20(토)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4/17(수)	1/4분기 제직회
4/19(금)	성금요일예배
4/21(주일)	부활주일 / 장애인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올해는 “유·유·청·청 리바이벌”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되는 해입니다. 함즐함울 지난 송구영신호에서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호는 유아숲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유아숲의 교역자와 교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우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 사진을 모으고 글을 써 주셨습니다. 이제 이 특집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다음 세대를 이을 이 귀한 아기들의 성장에 ‘온 마을’과 같은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즐함울

유아숲 특집 | 유아숲을 소개합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꿈을 심는 유아숲

영유아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얻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얻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얻는다.’라는 격언이 있다. 한 사람이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성장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유아기의 경험들이 한 사람의 전인격적 가치관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 경험과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적 영향력은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유아기의 건강한 신앙적 경험들이 유아들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의 결을 결정하는 필수적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

주님의교회 ‘유아숲’은 인생의 결정적 시기를 살아가는 유아기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 활동을 통한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 시청각 교구와 놀이를 이용한 눈높이 활동을 통해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아들이 신앙의 바른 생활 습관을 습득하고, 자기 삶 속에서(유아들도 다 자신의 삶이 있다) 그것을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유아숲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아이를 키워내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아이가 있는 모든 곳이 교육의 장이 될 때, 그 풍성한 경험 속에 아이는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 교회만이 아니라, 아이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노력할 때, 이 땅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도록 인도

이를 위해 ‘유아숲’은 가정 연계 신앙교육으로 ‘유아숲 만나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유아숲에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가

정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가 억지로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말씀을 읽어 줄 것과 가정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한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아기에 습득하는 신앙의 바른 습관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가정예배를 통한 부모의 변화

이뿐만이 아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자녀를 위해 시작한 말씀 읽기와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가 먼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유아숲 안에서 다른 가정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매주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보통 가정예배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로 정의하고 복잡한 예배 예전을 가정에서 함께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 유아숲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늘 하루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예배의 핵심 정신이 실제 나눔의 전부이다. 단순한 형식의 나눔이지만, 그 안에서의 은혜와 성과는 풍성하다. 또한, 가정예배가 아직 습관

이 되기 전이라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만나송이’를 통해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 여부를 점검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한 가정, 한 가정 참여하는 가정이 늘어났고 그 가정들의 간증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더욱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확정되어 갈 ‘유아숲 만나만나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한다. 또한 유아들(과 그 가정)에게서 발견한 이 놀라운 역동성이 유유히 청과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으로 번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

주님의교회 ‘유아숲(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기정원, 어와나키비단, 유아영성나무 센싱더스토리)’은 인생의 결정적 시기를 살아가는 유아들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주된 신앙 교사가 되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가정이 진정한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교육한다. 이를 위해 많은 선생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랑과 기쁨으로 꿈을 심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꿈을.

이은미 전도사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유아기는

이후 삶의 기본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 시기라고 불린다.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 경험과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적인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유아숲 교역자



유아숲 부장단

유아숲 특집 | 유아숲 부서 소개

아기부터 엄마 아빠까지, 우리가 모두 유아숲!

주님의교회 유아숲은 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기정원, 어와나커비단, 유아영성나무 센싱더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살아가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꿈을 심고 있습니다.

유아숲 특집 | 하임 아기부

아직 아기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임 아기부는 태어나서 15개월까지의 아기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부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축복으로 허락하신 아기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임 아기부는 부모와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며, 반별 나눔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예배시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지하 1층 아기부실



아기를 안고 모두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유아숲 특집 | 하늘씨앗 영아부

아장아장 걸음마, 그게 저예요!

하늘씨앗 영아부는 아장아장 걸음마가 익숙해지기 시작한 15개월부터, 밖에서는 과묵하지만 집에서는 조잘조잘 말문이 트기 시작한 3세까지 아기예배자들의 예배터입니다. 유아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예전을 배우고 작은 예배자로 성장하며 부모는 영아부 예배를 공예배로 인식하며 예배자로서 바르게 예배드림으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끼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숲 만나만나'를 통해 부모를 자녀의 신앙교사로 세우고 가정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 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2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1층 영아부실



조잘조잘 예수님을 배워요.

유아숲 특집 | 향유옥합 생일파티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고 경탄하고 축복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유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뜻한 즐거움이 감동으로 어우러지는 행복한 파티

하늘씨앗 영아부의 '향유옥합 생일파티'를 소개한다.

매월 둘째 주일, 하늘씨앗 영아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생일파티가 열린다. 해당 월에 생일을 맞이하는 유아들의 엄마아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은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며 크리

스찬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며 축복하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이다. 이를 위해 영아부는 한 주 전에 엄마아빠에게 '향유옥합 생일파티' 안내문을 발송하여 준비를 돕는다.

생일파티 당일, 영아부 예배를 마치고 그달의 생일은 맞은 유아의 가족이 앞으로 나온다. 엄마아빠는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의 교사가 될 것을 영아부 가족들 앞에서 발표한다. 아울러 아이를 향한 부모로서의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엄마아빠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회중의 모든 엄마아빠와 유아들이 함께 생일을 맞은 친구를 향

해 '엄지 척'하면서 "OO(이)는 최고예요!" 라고 외치며 축복한다. 생일선물로 지급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생일카드를 수여한 후 모든 회중과 교사들이 엄마아빠의 쉼마 육아를 응원하는 축복송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를 부르며 축복하는데, 영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연해 지는 순간이다. 그때, 갖가지 파티의상을 입은 교사들이 다양한 악기를 들고 나와 생일을 맞이한 유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마음껏 축복하며 마무리 한다.우리를 만드시고 한 가정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송하고 함께하는 서로를 인해 경탄하며 축복하는 하늘씨앗 영아부의 '향유옥합 생일파티'는 향유옥합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드림예배이다.



유아숲 특집 | 싹트네 유아부

또래들과 공동체로 드리는 첫 예배

싹트네 유아부는 4, 5세 유아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또래들과 공동체로서의 첫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과 찬양,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 매 주일 신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닌, 예배자의 모습으로 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이후에는 ‘유아숲 만나만나’를 통해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 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 2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 1층 유아부실

교육과정 : 2년



유아부 아이들이 말씀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아숲 특집 | 담쟁이 유치부

개구쟁이지만 유아숲에선 가장 나이가 많아요

담쟁이 유치부는 6, 7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과 찬양으로 매 주일 감동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도록 모든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로 함께 돕고 있습니다. 주일 이후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가정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 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 2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 지하1층 유치부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건 늘 기쁜 일이에요.

유아숲 특집 | 새친구반 (담쟁이 유치부)

처음 왔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연신 몸을 비비꼬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유치부실을 찬찬히 보는 아이의 눈... 처음 주님의 교회에 온 아이가 분명합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반별로 공부하고 있을 때 새친구 아이들은 그나마 조용(?)한 뒷자리에 따로 모여 4주간 새친구 교재를 가지고 재미있는 말씀이야기 책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한지 부모님 품에 몸을 붙이고 겨우 손만 책상에 허락합니다. 첫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활동으로 하늘바다땅의 창조물들을 스티커로 붙이며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해 나갑니다. 둘째주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를 통해 슬플 때 기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듣고 예수님 팝업그림책을 만듭니다. 책을 접었다 펴면서 나에게 하트를 보내는 예수님 그림을 보며

아이들은 깔깔깔 웃습니다. 이렇게 매주 활동을 하며 아이들은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들까 궁금한지 뒷장을 넘겨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다음에는 뭐해요?”, “궁금하지? 그럼 다음 주에 꼭 와서 우리 같이 만들어 보는 거야! 다 완성하면○○의 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마음에 담아 가는 아이들이 제 눈에도 이리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슴절절하니 예뻐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매주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주님의 교회가 왜 좋은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려줄 수 있어서 그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대를 뛰어 넘어 여러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당연

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주일 교회에 오고 싶어 주일이 기다

려지는 어린이들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새친구들은 스티커북을 만들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요!

유아숲 특집 | 아기정원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이랑 함께 배워요

유아숲의 주간교회학교인 아기정원은, 영아 또는 유아가 엄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자라도록 돕는 유아교육인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기정원을 통해 엄마는 아이와 함께 놀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신앙적 양육을 배우면서 기쁨과 보람이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아기정원은 아기가 다양한 놀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기를 위한 학교인 동시에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을 행복하게 배우는 엄마들을 위한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정원에서는 우리 교인 가정 뿐만 아니라 타교인, 타종교, 믿지 않는 가정 이 함께 어우러져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기정원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어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며 아기정원 교사들은 교회의 얼굴로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자들로서 있기를 자처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 예배(찬양과 율동, 예배, 축복기도), 자유놀이, 유아체조, 유아미술, 유아음악놀이, 야외학습, 신체놀이, 오감체험활동, 부모교육

교육 대상 : 생후 18~40개월 아기와 엄마(보호자) 함께

교육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봄, 가을 각각 12주)

장 소 : 1층 싹트네(유아부)실



아기와 엄마가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작은 학교예요.

유아숲 특집 | 어와나커비단

말씀 암송으로 하나님 자녀되기

커비단은 5~6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말씀 암송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믿음의 탁월한 리더로 자라나도록 훈련받는 2년 과정의 어와나 클럽입니다.

클럽활동시간 : 토요일 오전 9시 50분

장소 : 1층 싹트네(유아부)실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에요.

유아숲 특집 | 유아영성나무 센싱더스토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유아영성나무 '센싱더스토리'는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어린이 영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써 영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어린이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빚어 가십니다. 따라서 유아영성나무 '센싱더스토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자체에 집중하고, 성경 스스로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공간을 창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생명력을 부여하셔야만,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생생하게 재현되고, 이야기 속의 모든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센싱더스토리는 스토리텔러가 시연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거룩한 이야기에 영적 생명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둡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스토리텔러인 성령이 역사하실 시간과 공간을 비워두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유아영성나무 센싱더스토리는 성령과 교사가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현함을 통해 어린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어린이 영성이 자라게 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교육시간 : 수요일 오후 7시 20분 ~ 8시 30분

교육대상 : 6~8세 어린이

장소 : 1층 싹트네(유아부)실



성경을 이야기로 재미있게 배워요!

유아숲 특집 | 부모 간증 (가정예배)

아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 성장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잠이 든 지 벌써 8개월, 이제 주호는 엄마가 정신이 없어 만나송이를 잊은 채 누우면 혼자 일어나서 등을 켜고 만나송이를 꺼내 와 읽습니다. 주호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도,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 말씀을 엄마에게 다시 듣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부터는 자기가 먼저 그 다음 내용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루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예배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설교 시간에 받은 은혜를 한 주 내내 묵상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아이로 인해 저희 부부도 날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곱씹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잠드는 습관을 갖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이를 통해 저희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늘씨앗 영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석주호 엄마아빠

유아숲 특집 | 부모 간증 (가정예배)

하나님 날마다 내려주신 기적의 만나송이

평일에 퇴근이 늦은 맞벌이 부부에게 주말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도 가고, 소풍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 등 여러가지를 하다보면 주말은 눈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취침시간이 아무리 늦어져도 저희 가족이 잠자리에 들기 전 빼먹지 않고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크면 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유아숲 만나만나’ 프로젝트 ‘만나송이’를 통해 가정예배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둘째 돌이 지나고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 된 작년 하반기

기부터 간소하게나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찬양과 성경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한 목소리로 부르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성경책인 “와! 성경이 살아있다”(데니스 존스 그림, 스토리 이은미/성서유니온선교회)를 읽습니다.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성경 이야기를 골라보라고 하면 서로 자기가 고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은 날도 있지만, 다섯 살 된 첫째의 “가정예배 들려야지!”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창하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생각하

며 그 분을 찬양하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올해부터 주님의 교회 유아숲에서 나눠주신 가정예배 체크리스트 ‘만나송이’는 가정예배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 열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광야에서 마땅한 음식이

없어 방황하며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

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

주신 기적의

음식 만나.

우리 교회 유

아숲 모든 가

정에서 만나송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하준 하민 엄마아빠

유아숲 특집 | 부모 간증 (말씀사랑달력)

말씀사랑달력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저희 가족은 4식구입니다. 첫째아이인 종성이는 싹트네에서, 둘째아이인 종명이는 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영아부에서 말씀사랑달력을 작년부터 한달에 한번 나누어 주셨는데, 하루에 한번 아이들에게 성경을 정해진 쪽수만큼 읽어주기란 쉽지 않았습니

다. 아부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가정의 말씀달력 한 달 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며 광고시간에 선물을 받는데, 그걸 본 둘째 종명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선물을 받고 싶은데 선물을 못 받은 것이 서러워서 울었을 것이고, 분명 그 선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텐데도 아이가 우는 모습에 괜히 제가 잘못된 거 같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선물을 받기 위해 악착같이 읽지 않고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어주고 읽기 시작했고, 어느덧 아이들은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읽지 말고 자려고 누웠는데, 첫째 종성이가

오늘은 왜 성경책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자려고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 물음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

마의 몸이 힘들다고 하는 건 핑계인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몸을 일으켜 성경책을 읽어주고 엄마가 몸이 힘들어서 성경책을 읽어줄 생각을 못했다고, 미안하다며 이야기 한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겠다며 약속하고 기도한 후에 아이들과 잠을 청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또, 아이들의 성경책은 어린이 성경책인데, 저는 단순히 쉽게 되어 있는 어린이 성경이라 무시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되어있든 어렵게 되어있든 관계없이 저에게도 감동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읽다보면 아이들과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등 그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는데, 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종성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데 조금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며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부모

인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했는가!

반성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함에도, 일상 생활에 지쳐 혹은 까먹어서 한 주를 그냥 보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듣고 월요일엔 잊어버립니다. 마치 잠깐 들어왔다 금새 빠져나가는 우리의 급여통장처럼 말이죠 ^^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며 주의 동행하심과 사랑하심을 느껴보는 부모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오늘밤도 아이들과 저희 부부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박종명 엄마아빠



주일에 말씀달력을 받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

유아숲 특집 | 교사 간증 (만나모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만나모아!

출근하는 아침 시간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휘리릭 내려와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숨을 한번 고릅니다. 그리고 ‘만나 모아’ 수첩을 펴니다. 저는 그 속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활을 만나며 그들의 소원과 아픔과 감사를 만납니다.

큰 사위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작은딸의 학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길, 모든 가족이 법사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섬기길 소원하는 예쁜 선생님.

2019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해지길 기도하는 신실한 선생님.

직장이나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 들판 선생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성실하신 전도사님.

중국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

어린 딸의 백혈병 투병 속에서 함께 동행해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 후배.....

그리고 마음을 모읍니다.

때론 함께 간절함으로, 눈물로, 땀을 쓰며, 기쁨으로 마음을 모으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만나 모아’ 기도 시간이 제겐 선물이며 도전이며 훈련이 됩니다. 저를, 공동체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마음을 **모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영 교사 / 하늘씨앗 영아2부

유아숲 특집 | 새친구반 (썩트네 유아부)

봄맞이 꽃을 닮은 내 마음속 나의 선생님처럼

4월에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을 보면 어린 시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떠오르곤 한다.

얼굴도 성함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 나의 선생님들은 모두 봄맞이 꽃을 닮았다. 하얀 꽃잎에 점 찍어놓은 듯 노란 꽃술처럼 부드럽던, 선생님들의 웃음을 잊을 수 없다.

그걸 기억하며 나는 기도한다.

내게 주어진 그 파스함이, 지금 이곳 썩트네에도 있기를.

아이들을 향한 나의 미소가 봄맞이 꽃처럼 푸근하기를.

아이들을 향한 나의 태도가 봄바람처럼 파스하기를.

아이들을 향한 나의 진실함이 예수님을 닮기를.

썩트네 아이들과 4주간 새친구 교재 속에 담긴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세상과 그분을 닮은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큰 사랑 속에서 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마지막 4주차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을, 썩트네 유아부 한 가족이 됨을 새롭게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함의 고백을 드렸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새가족 교재를 가정으로 보낸 주일,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 엄마, 아빠를 앓혀 놓고 새가족 교재를 펴서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 역할 놀이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많이 사랑해, 나도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어머니의 나눔을 듣고,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니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파스한 봄바람에 피어난 노란 봄맞이 꽃처럼 오늘도 나는 내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아이들 마음에 믿음의 싹이 자라나 잎이 되고 꽃이 피어 귀한 열매 맺기를.

이혜리 교사 / 썩트네 유아2부

유아숲 특집 | 부모 간증 (가정예배, 말씀사랑달력)

말씀사랑달력과 만나송이를 통해 주신 가정예배에 감사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가족에 2016년 7월에 첫 아이를, 2018년 7월에 둘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사랑달력을 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아기 키우기도 힘든데 저런 것까지 하는 가정이 있구나. 대단하다.’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는 만만치 않았고, 둘째 아이도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아내도 많이 힘들었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몇번의 실패 끝에 말씀사랑달력의 페이지가 가리키는 그림성경을 구하는데 성공했고, 제가 둘째를 재우는 동안 첫째 아이와 매일 그림 성경을 읽고 잠들기 시작했

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도 점점 자라나며 잠 습관이 바뀌어 요새는 드디어 네 가족이 모두 모여 그림 성경과 만나송이의 말씀을 읽고 잠에 듭니다. 매달 달력을 다 채워가면 받는 선물 욕심은 어른이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작은아이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 못할 것입니다. 큰아이는 때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졸리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 등 항상 집중하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읽어보는 내용을 생각보다 정확히 이해해서 부모를 놀라고 기쁘게도 합니다.

제가 작은아이 나이 무렵은 물론이

고 큰아이 나이 무렵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으니, 아마 제 자녀들도 오늘 드린 예배를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이 두 아이는 본인들이 인식하기 전에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어있을 것이고, 제가 오랫동안 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던 가정예배가 아이들에게는 습관이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을 옛적 동화처럼 듣고 익숙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 부모에게도 큰 위안과 감사가 됩니다. 그림성경에 있는 성경말씀을 아이에게 좀 더 전할

욕심에 개그콘서트에 나온 신인 개그맨처럼 온갖 손짓 몸짓 말을 해가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두 아이, 너무 감사한 보물이지만 또한 큰 도전입니다. 많이 힘들 수 있는 시기에 부모와 자녀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교회 아기부, 영아부에 감사드리며, 또한 말씀사랑달력과 만나송이를 통하여 저희 가정에 가정예배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유은 엄마아빠

아기나들이



전서후 아기

2019년 1월 3일생

1.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정이 서후로 인해 더욱 화평하기를 기도합니다.
2. 서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3. 서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저희부부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전영남 집사 / 엄마 김세희 집사, 2019년 3월 24일 3부 예배

간증시편

하늘이 내려온다

봄은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얼음은 찬바람을 안고 계곡을 떠났다.
바람은 어린 아가 불같이 따스하고
발을 가는 엄마소 곁에서
송아지는 재롱을 피운다.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의 얼굴들이
푸른 하늘 창에 그림으로 왔다 떠났다.
엄마~ 아빠~ 형~ 누나를 향한
갈급한 내 외침은 메아리 되어 날아가고
그리움은 눈물 되어 흘렸다.

하늘나라에는 푸르른 평화가 흐르고
따스한 사랑, 달디 단 용서도 풍성하고
향기 가득한 보살핌도 넘쳐나리라.
봄별 푸른 창을 타고 온 그림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늘에서
보낸 선물일거야

이 땅에도 하늘나라처럼
평화, 사랑, 용서, 보살핌이 향기 되어
푸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뤄지게 하소서

김충권 은퇴 안수집사

다시 한 번 찾습니다

에코백을 드리고 싶어요

한 일년 쯤 전에 화장실에서 교인이 들고 있던 에코백을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얼굴도 성함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선뜻 드리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그분을 찾아달라고 에코백을 함글함글팀에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높이 26cm, 폭 34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 에코백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hamletter@daum.net으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선교회 소식

남선교회 연합 산상기도회



남선교회에서는 3월 30일 토요일 청계산 기도원에서 연합으로 산상기도회를 가졌다. 날씨가 불순하여 추위에 간혹 봄비까지 내렸지만 50여 분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남선교회 담당 허준 목사는 시편 125편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악인들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마친 후 남선교회 회원 모두는 각자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드렸다. 나무를 붙잡고 기도도 드리고 바위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통성 기도를 가졌다. 청계산 능선 길을 따라 내려오며 양지바른 곳에 피어난 진달래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교회에서 준비해간 따뜻한 점심을 먹으며 하나의 공동체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 마음이 함께하기를 원했다. 주님의교회 남선교회는 1~5까지 5개 남선교회로 이루어졌는데 1남선교회는 만 70세 이상이며, 그 아래 5년 단위로 구성되어 마지막 5남선교회는 만 55세 미만이 참여하게 된다. 남선교회에서는 4월 20일 (토) 새벽기도 후 여전도회와 함께 부활절을 맞아 교회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으로, 교회 대청소에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1. 교회 유튜브 채널 개설

주님의교회 PCL 로 검색하면 주일, 수요일, 특별예배 설교말씀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왕세윤 집사(010.6751.9870)

2. 새가족 겨자씨 인도자 모집

자격 : ①등록 후 2년이 지난 분(서리집사 및 향존직)

②새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분

③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가족을 헌신적으로 양육할 분

신청 : 3/17~4/14 매주일 오전8:30~오후2:00 로비(1층)

문의 : 문희삼 목사(010.4305.1849)

3. 2019 고난주간 · 부활절 특별행사

① 온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일시 : 4/15(월)~20(토) 오전5:20 대예배실

강사 : 김화수 담임목사

* 매일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신청 : 4/7 ~14 (특새기간 중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택1) : (1) 인터넷 신청(문자나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 로비신청: 4/7,14(주일) 오전 8:00~오후 3:30

②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예배극 “김 마리아”

일시 : 4/17(수) 오후7:20 대예배실

③ 성금요일예배 : 4/19 (금) 오후 7:30 대예배실

④ 부활절예배 : 4/21(주일) 1,2,3부 예배

⑤ 부활절 오라토리오 “예수 그리스도”

일시 : 4/21(주일) 오후 2:00 대예배실

4. 유아세례 신청 및 교육

대상 : 교회등록 6개월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 4/14(주일)까지 안내데스크(1층)

교육 : 4/21, 28(2주)

문의 : 이창수 집사(010.5472.7059)

▶ 유아세례예식 : 어린이주일(5/5 3부 예배시)